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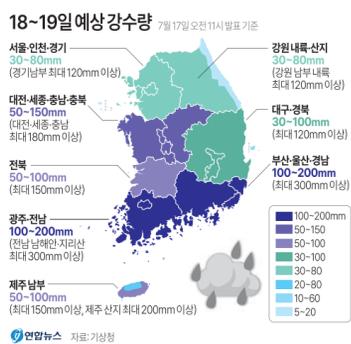


물바다 된 광주 시간당 최고 90mm의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관들이 차량 탑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광주지역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311.5mm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광주천 등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돼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애리 기자

311.5mm '극한호우'...광주가 잠겼다

시간당 최고 90mm '물폭탄' 피해 속출
도로·건물 침수 등 광주·전남 506건
다행히 인명 피해無...홍수특보 확대
내일까지 400mm 폭우 이어져 '초비상'

불과 만나질 동안 쏟아진 311.5mm 극한호우에 광주가 잠겼다. 광주·전남에 17일 최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교통 통제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극한호우'는 이번 주말·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초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6면
◇전 지역 호우경보·주의보...침수 잇따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가 311.5mm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곡성 288.5mm, 담양 280mm, 나주 279.5mm, 화순 230mm, 함평 200mm, 장성 171.5mm, 무안 139mm 등으로 남해안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 지역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실제 완도와 해남의 강수량은 0.6mm, 0.3mm에 그쳤다.
광주와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 제외)·흑산도·홍도에는 호우경보가, 보성·순천·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나주가 오후 3시 46분 92

mm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광주 80mm (오전 11시), 담양 74mm (오후 5시 44분), 곡성 70.5mm (오전 11시 49분) 등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곳곳에 쏟아졌다. 배수될 틈도 없이 퍼붓는 비에 각종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호우 관련 피해 신고는 광주 348건, 전남 158건 등 총 506건이다. 도로나 건물 침수·장애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명 구조도 3건이 있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특보 상황...교통 통제도 확대
이날 오후 처음 광주·전남에 발령된 홍수특보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
광주에선 용진교와 장록교를 제외한 극락교·풍영정전교·유촌교·용산교·평림교 등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전남에선 함평 원고교, 담양 삼치·양지교에 홍수경보가, 화순 주도교, 나주 우산교, 장성 제2 황룡교·금계리 등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오후 4시 30분을 기해 광

주 승촌보의 초당 방류량을 기존 1천100㎥에서 410㎥ 늘렸다. 나주 죽산보 역시 초당 600㎥을 올려 2천500㎥씩 방류하고 있다.
교통 통제도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하차도 5개소, 하상 도로 11개소, 하천·출입로 336개소, 하천 둔치 주차장 11개소 등 위험 지역 470개소를 통제했다.
전남도도 여객선 11개항로 15척과 하상 도로 6개소, 둔치 주차장 2개소, 하천변 2개소 등 18개소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광주공항에서 제주나 서울·김포로 향하는 항공기는 19편 중 14편이 결항했다. 광주행 항공기는 4편만 도착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4시 14분을 기해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광주 지하철의 경우 상무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농성-송정역 운행 중단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市·道 '선제대응' 위험지역 주민 대피

주말·휴일까지 폭우가 이어지며 하천 범람 우려가 커 행정당국은 위험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하고 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0-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이다.
특히 18-19일 광주·전남은 시간당 30-5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50-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산사태와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통제와 대응을 목표로 비상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에선 도심 하천 일대 등 피해 우려가 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에선 나주 45세대 58명, 담양 54세대 76명, 곡성 41세대 67명, 함평 9세대 61명, 영광 9세대 10명 등 총 149세대 327명이 사전 대피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시-5개區, 소비쿠폰 예산 '5대5' 분담 확정

100억원 규모 특별교부금 지원 합의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던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분담 비율을 5대5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광주시는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7일 오전 동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비 400억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는 각각 200억원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광주시가 자치구에서 요구해온 재정 보전 대책으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특별교부세는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배분 방식은 전체 금액 중 40%는 동등 균분하고 나머지 60%는 자치구별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분담 비율이 확정되면서 자치구별 구체적인 분담액도 정리됐다. 인구 비율에 따라 동구 15억 1천만원, 서구 39억5천만원, 남구 29억7천만원, 북구 60억1천만원, 광산구 55억6천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광주 최종 부담금은 행정안전부가 지급 대상자를 재추산한 결과에 따라 당초 400억원에서 4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이 추계는 1차 지급분을 기반으로 2차 지급까지 고려한 규모다. 1차분은 전액 국비로 우선 집행되며 2차분부터 지방비가 반영된다. /변은진 기자

Today

'반의 반값알뜰여행' 전남으로 오세요 5면

키워드로 보는 영화이야기 '청년 예술' 14면

KIA, 후반기 주목되는 기록들은? 16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트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 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 2,000~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